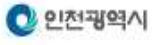
		<b>보 도 자 료</b>		2025년 <b>수도권매립지 종료</b> 	
		배포일자	2021년 4월 22일(목) 총 2매		
담당 부서	도시개발과	담당자	· 신도시팀장 정 현 ☎ 440-3321 · 담당자 정유진 ☎ 440-3324		
<b>사진</b>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b>참고자료</b>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b>보 도 일 시</b>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택상 균형발전정무부시장, 검단신도시 도로 추진상황 점검

- 현장 방문해 단지 내·외 주요 도로 추진상황 점검 -
- 올해 하반기 7,976세대 순차적 입주, 총 7만5천여 세대 입주 예정 -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조택상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이 4월 22일 올해 6월부터 첫 주민 입주가 시작되는 검단신도시 현장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택상 균형발전정무부시장 현장 방문은 지난 4월 6일 안영규 행정부시장의 기반시설 점검에 이어, 단지 내·외 도로의 추진상황을 직접 점검해 신도시 입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추진됐다.

검단신도시는 인천 최대의 계획 신도시로서 2023년까지 사업이 모두 완료되면 총 7만5천여 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다. 오는 6월부터 1단계 6개 블록 7,976세대가 올해 안에 순차적으로 입주하게 된다.

이날 조택상 부시장은 인천도시공사 신도시사업단 홍보관에서 단지 내·외 도로 추진현황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이어, 수도권 매립지 연결 도로인 드림로와 지구 내 간선도로(대로2-78호선) 연결 현장을 직접 방문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서울로 출·퇴근하는 입주민들이 진·

출입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임시 도로 개설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인천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입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초 올해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이었던 임시 도로 개설 공사기간을 6월까지 최대한 단축할 예정이다.

한편, 검단신도시 1단계 단지 내 주요 도로는 18개 노선으로 올해 6월까지 차질 없이 완료될 예정이다. 또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추진되는 단지 외 도로는 철도(검단연장선) 1개 노선, 광역도로 5개 노선, 일반도로 2개 노선으로 2023년부터 2024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택상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은 “주요 기반시설인 단지 내·외 도로는 출·퇴근 등 주민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적기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책임을 갖고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하는 한편, “주민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공기 단축 및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관련 사진은 17시 이후 인천시 홈페이지 '보도자료'에 게시될 예정입니다.